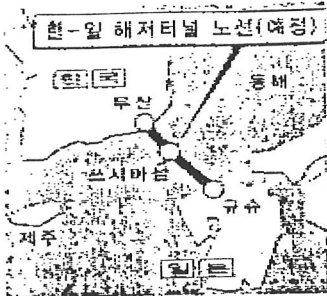


世界日報 (韓国)

2002 年 4 月 15 日



한-일 해저터널 곧 타당성 조사

부산에서 일본의 쓰시마를 거쳐 규슈지방을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총 연장 200km)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이달 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곳 중 한 곳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일 해저터널은 1940년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구상 실현을 위해 계획한 뒤 한일 민간단체에서 꾸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왔으나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양국간 해저터널이 두 나라 국민과 민족감정, 기술적 가능성, 공사비 부담 등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만큼 이번 용역작업은 사업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건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강갑수기자 kks@sgt.co.kr

(日本語訳)

韓日海底トンネル早急に妥当性調査

釜山から日本の対馬を経て九州地方を結ぶ韓日海底トンネル(総延長 200Km)の妥当性調査が実施される。

建設交通部は“韓日海底トンネルの必要性について立場を整理するため、今月末に交通開発研究院、国土研究院、韓国鉄道技術研究院の3団体のうち1団体に妥当性検討のための用役を依頼する予定”と14日明らかにした。

韓日海底トンネルは1940年代、日本が大東亜共栄圏構想を実現するため計画されたが、その後、韓日の民間団体で弛みなく研究と検討がなされてきたが、わが国の政府レベルで検討作業が行わ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ある。

建設交通部は“両国間の海底トンネルが両国国民の民族感情、技術的可能性、工事費の負担などが解決すれば可能だが、今回の用役作業は事業を着手するかどうかを検討するというよりは、建設の必要性があるかないかが焦点である”と説明した。